

# 양현종 “분위기 좋아 가을 야구하겠다”



8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회초 무사에서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

“가을야구 할 것이다.” KIA 에이스 양현종이 멋진 복귀 신고식을 했다.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 호투를 펼치고 팀의

아시아게임 2경기 등판 후 어깨 건재감 과시  
삼성전 등판해 6이닝 1실점 호투 12승 챙겨  
“우리팀 1승 중요...집중하면 가능” 자신감

12-4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12승(9패)을 챙겼다. 1회 박해민에게 2루타, 구자욱에게 적시타를 맞고 선제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 6회까지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단 한명도 2루를 밟지 못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아시아게임 2경기 등판을 했는데도 어깨의 건재감을 과시하며 완벽투를 펼쳤다.

타선도 홈런 3개를 포함해 5회까지 10점을 보태 승리를 지원했다.

경기후 양현종은 “아시아게임을 마치고 첫 경기라 조금 부담 있었다. 최근 우리 팀 분위기가 좋고 홈팬들의 응원속에서 던져 좋은 결과

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팀에서 던지고 왔지만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생각이어서 체력 부담은 없었다. 1회 조금 어려웠지만 야수들이 점수를 많이 내주어 안정을 찾아 좋은 결과를 냈다. 어제 그제 중간투수들이 많이 나와 불펜에 어깨를 덜어주기 위해 많은 이닝을 책임지고 싶었다. 공격적인 투구를 한 것이 투구수를 줄이고 승리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팀은 1승이 중요하다. 선수들 모두 부상 조심하고 야구에 더 집중한다면 가을야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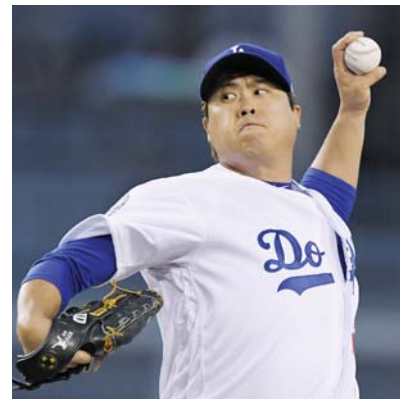
# 류현진, 내일 신시내티전 원정 선발출격

보도 · 지넷 조심해야

류현진(31·LA 다저스)이 사타구니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원정 경기에 등판한다. 1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리는 2018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올해 류현진의 신시내티전 등판은 처음이고, 신시내티전 통산 성적은 5경기 3승1패에 평균자책점 4.30이다. 부상 복귀 후 첫 원정에서 시즌 5승(2패)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지난 8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선발등판해 6이닝 10피안타 8탈삼진 5실점(1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된 바 있다. 이날 류현진은 3회까지 완벽한 피칭을 했지만, 야수진의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신시내티는 시즌 61승83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있는 팀이다.

하지만 조이 보토는 경계대상 1호다. 보토는 류현진을 상대로 11타수 4안타(1홈런)로 강했다. 올해 출루율도 0.421로 높다. 0.317의 타율에 22홈런을 친 스루터 지넷도 조심해야한다.



9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써닝포인트 CC에서 열린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 FR에서 정슬기가 4번을 티샷 전 코스공략을 고심하고 있다.

# 정슬기, KLPGA 투어 데뷔 첫 승

정슬기(23·휴온스)가 제8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승을 신고했다. 9일 경기도 용인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2·6622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08타를 적어낸 정슬기는 공동 2위 그룹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리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KLPGA 투어 생활을 시작한 정슬기는 3년 만에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준우승의 아쉬움도 함께 날렸다.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4위로라운드를 맞이한 정슬기는 전반 9개 홀을 1언더파로 마쳤다. 본격적인 타수 줄이기는 후반 들

어 시작했다. 10번홀, 12번홀, 14번홀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속아냈다. 둘째날까지 선두권을 지키던 김지영(22·SK네트웍스), 김소이(24·PNS)가 약속이라도 한 듯 부진하면서 정슬기는 1위 자리를 꿰찼다.

위기도 있었다. 첫 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16번과 17번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했다. 공동 2위 그룹과의 격차는 1타로 좁혀졌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정슬기는 마지막 홀을 파로 막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해 정슬기의 챔피언 등극이 확정됐다. 동료들은 꽃가투를 뿌려주며 축하했다.

1년 4개월 민의 우승을 목전에 뒀던 김지영은 이날 2오버파로 부진, 1타차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 하루에 만루포 3개...역대 타이 기록

광주 · 인천서 한승택 · 강민호 · 한동민 그랜드슬램

프로야구에서 하루에 3개의 만루 홈런이 터졌다.

9일 오후 2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2개의 그랜드 슬램이 나왔다.

KIA 한승택은 2회말 삼성 선발 백정현을 상대로 선제 좌월 만루 홈런(시즌 3호)을 터뜨렸다. 개인 통산 1호 만루포였다.

이에 삼성 강민호는 역전 만루 홈런으로 응수했다. 강민호는 2-4로 끌려가던 3회초 2사 만루에서

KIA 선발 헥터 노에시로부터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4점 이치를 뽑아냈다. 시즌 21호 홈런이자 개인 통산 11번째 만루포를 때려냈다.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도 만루 홈런이 나왔다.

SK 와이번스 한동민은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1-2로 뒤진 4회말 만루 홈런을 쏘아 올렸다. 시즌 30번째 이치를 그랜드슬램으로 장식한 것이다. 개인 통산 4호 만루포다.

KBO리그에서 하루에 3개의 만루 홈런이 나온 것은 역대 타이 기록이다.



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2회말 2사 만루에서 KIA 연타자 한승택이 만루홈런을 치고 있다.

루 홈런이 나온 것은 역대 타이 기록이다.

이날까지 총 5차례를 기록했다. 뉴스스

# 추신수, 3G 연속 멀티 출루...4타석 2타수 무안타 2볼넷 1득점

텍사스, 4안타 빈공에 그쳐 오글랜드에 3-7로 역전패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멀티 출루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오글랜드-알리메다 카운티 콜리시엄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오글랜드 어슬레틱스와 원정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4타석 2타수 무안타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추신수는 이날 무안타에 그쳐 시즌 타율이 0.272로 조금 내려갔다. 최근 3경기 연속 멀티출루다.

추신수는 1회초 무사 1루에서 볼

넷을 골라내 선취점을 뽑는 데 기여했다.

추신수는 3회 공격에서도 볼넷으로 출루한 후 애드리안 벨트레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득점에 성공

했다. 시즌 80득점째.

그러나 이후 타석에서는 삼진만 2차례 당했다. 5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7회 2사 1,2루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편, 텍사스는 4안타의 빈공에 그쳐 3-7로 역전패했다. 원정 3연전을 모두 패하는 등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지리산관광지정보센터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성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굴,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